

올해는 개학 연기 없다... 3월 2일 새학기 시작

광주시 교육청, 학사·방역대책 발표

교육부의 '연기없는 개학' 방침에 따라 새학기 광주지역 소규모 학교 등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광주의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개학 연기없이 오는 3월 2일 정상적으로 새학기를 시작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며, 원격수업 병행 때도 우선적으로 등교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등교수업도 확대한다. 초·중·고 300명 이하 학교,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 67개교에서 올해는 31개교 늘어난 98개교가 등교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등교수업과 함께 원격수업도 내실 있게 진행한다.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광주 화상수업 플랫폼 '미더스'(MeetUs)를 구축 운영한다. '미더스'는 광주시교육청만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이 포함된 원격 화상 플랫폼으로, 오는 3월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학생·교직원 2만명 동시접속이 가능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에 2635대의 PC를 지원했는데, 올해 380대를 더해 총 3015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기기는 올해 4878대를 대여했으며, 월 1만7600원의 인터넷 통신 이용료도 지급한다.

전체 학교에 원격수업을 위한 1만1890대의 스마트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광주 전체 학교의 일반교실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한다. 시교육청은 무엇보다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학을 앞두고 오는 3월 1일까지 광주 지역 전체 유·초·중·고(본청·직속기관·대안학교 포함) 523개교를 27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

유치원, 초 1·2, 고3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

소규모 학교 등 등교 확대·화상수업 플랫폼 '미더스' 구축

단위학교에 '심리방역단' 구성 돌봄교실·학교급식 확대

특별방역을 진행한다.

방역물품의 경우 학생 1인당 5매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학급당 3개 이상의 손소독제, 학급당 1개 이상의 체온계를 확보했다. 보건용 마스크 3만 6000매를 확보로 비축했다. 이를 위해 올해 방역물품 구입비로 5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모든 학교에 2~6명의 방역인력 총 1451명을 지원한다.

단위학교에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2주 자가격리 복귀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위기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3개 위(Wee)센터와 각급 Wee클래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심리방역 핫라인 체계도 구축한다.

돌봄교실과 학교급식도 확대한다.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돌봄교실을 학교 여건과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학교급식의 경우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더라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의 모든 학교, 모든 교직원의 역량을 모아 새학기 교육과정과 안전한 개학을 준비하겠다"며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면·비대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중기 코로나 방역 점검

최근 기업체 등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광주시 북구청 민생경제과 기업육성팀 직원들이 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아동학대 막아라

광주시, 대응 체계 강화 나서
전담인원 확대·위기가정 점검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860건으로, 이 가운데 80.7%인 69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가해자 유형은 부모 565건(81.4%), 대리양육자 79건(11.4%), 친인척 50건(7.2%) 등이었다. 피해 아동들의 연령별로는 10~12세가 170명(24%)로 가장 많고, 12~15세 146명(21%), 7~9세 131명(19%) 등의 순이다.

또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신고건수는 1029건, 학대 판정 건수는 844건이다.

광주시는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대 아동 발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아이 지킴이'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하나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광주시와 자치구에 총 1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아 24시간 근무한다.

또 분리 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 11명에서 2022년까지 19명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경찰, 전문기관과 함께 위기가정을 방문하는 합동점검도 수시로 한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에 대비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리카충과 상황 대응체제도 마련한다. /최원림 기자 cki@

동구 '코로나 대응팀' 구성

광주시 동구가 방역지침 위반시 강력히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자치구중 처음으로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꾸렸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법무전문관(변호사)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공무원으로 법적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행정·법적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위반사태를 줄여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부서(보건소, 주민안전과 등)의 가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응팀은 지역사회의 위함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검토 사항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교류도시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 연다

5월 개설...전북 임실·춘천·보성 등 10곳 참여

광주시 남구가 자매·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대면 직거래 온라인 장터 개설을 추진한다.

민간분야 경제 교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남구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호방문 등 대면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교류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 자매·우호도시 15곳에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장터 사업을 제안, 10곳으로부터 참여 확정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전국 10곳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를 오는 5월까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직거래 온라인 장터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임실군을 비롯해 부산 강서구,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남 고성군, 전남 보성군, 곡성군, 진도군, 영광군, 완도군 등 10곳이다.

온라인 장터가 개설되면 중간 유통 과정이 간소화돼 각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다이렉트 거래가 가능해 저렴한 값으로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북 임실군 치즈와 강원도 춘천시 닭갈비, 보성군 녹차와 꼬막 등의 특산물도 온라인 장터를 통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류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장터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도 링크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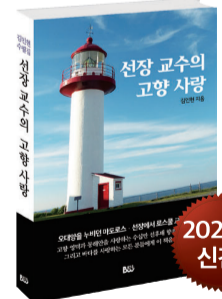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희동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기를 맞아 펴낸 한중일미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미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기가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